

“영어회화 재능기부로 주민소통 이어가겠다”

김정철 광주 동구 학동행정복지센터 주무관

매주 두차례 주민 맞춤형 무료강의 ‘눈길’
“치매예방 도움 뿌듯…자신감 심어주고파”

“해외에 나가면 어디를 가장 먼저 찾아가나요? 화장실이죠. 이럴 때 외국인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따라해 보세요. Where is the rest room(웨일 이즈 더 레스트룸)?”

매주 월, 수요일 오후 5시가 되면 광주 동구 학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즐거운 영어 회화 소리가 들려온다.

이는 학동에서 제증명 업무를 맡고 있는 김정철 주무관이 재능봉사로 나선 무료 회화강습시간이다.

김 주무관은 지난 2006년 미국으로 건너가 사회학 석·박사 과정을 마친 후 한국에 돌아와 늦깎이 공무원이 됐다. 그는 오랫동안 사회학을 전공하고, 영어 회화 능력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늘

소통하는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했었다.

김 주무관은 “외국어가 치매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기사가 발단이 돼 주민들을 위한 회화강습을 자청했다”면서 “중장년층은 새롭게 영어를 배우고, 또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를 전달하고, 자신감을 심어드리고 싶었다”고 겸손해 했다.

김 주무관이 진행하는 영어회화 강의는 대부분 해외여행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다.

이들때면 ▲비행기를 탔을 때 ▲면세점에서 상품 구매할 때 ▲몸이 아파 생긴 응급상황 ▲택시를 탔을 때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등 실제 해외에 나가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실용적



영어회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모든 강의 내용과 수업 진행 과정은 김 주무관이 직접 구상하고 있다.

강의 주제별로 실질적인 표현력과 활용방법, 쉽게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공부법을 나름대로 개발해 한 장의 종이에 고스란히 담아 교육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김 주무관은 “영어회화를 잘하는 비법은 ‘갑먹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말하며, 반복연습 하는 것’이다”면서 “2인1조로 짝을 지어 상황별 말하기와 퀴즈 풀이 및 전일 학습내용 복습 등 공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맞춤형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업무만 담당하는 공무원이 짝꿍 영어강사

로 나서자 주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처음에는 예닐곱명으로 시작했던 수업이 현재는 입소문이 더해서 소대동과 산수동, 지원동 주민들도 원정을 와서 강의를 듣고 있을 정도로 강의 시작 3달 만에 수강생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김 주무관은 “적극적인 학생(강의들은 주민)들은 주민센터에 오셔서 일부러 영어로 말씀해 보시곤 한다”면서 “수업을 들은 한 마을해설사분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배운 영어를 한 두마디 사용하겠다는 후일담을 들려주셨다”면서 뿌듯해 했다.

김 주무관은 퇴근 후에 진행되는데다 무료로 진행되는 강습이지만, 영어를 어려워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능력이 닿는 한 강의를 진행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본인이 직접 외국인과 대화하고, 교류해 보는 것만으로도 해외여행의 깊이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영어강의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계기로 마련됐다. 앞으로도 광주 동구 주민들 중 한 분이라도 영어 회화 공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기쁘게 강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송지기자



전남대 명예교수회, 이용섭 시장 초청 1월 포럼

전남대학교 명예교수회(회장 박돈희 명예교수)는 지난 22일 광주 시내 금수장관호텔 연회장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 초청 1월 포럼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 이 시장은 ‘혁신과 소통으로 열어나가는 인공지능 광주시대’를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광주의 경제발전 비전에 대한 소개와 함께 더 열심히 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동시에 전남대

명예교수회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이 시장의 은사인 박광순 대한민국의학원 회원이 축사를 통해 “이 시장은 대학부터 독서광이었다”고 회고하는가 하면, 조재욱 명예교수는 건배사를 통해 “이 시장이 이끄는 광주가 한층 성장하기”를 기원했다. 소프라노 김종례 여사의 특송이 포럼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도 했다.

/최권범기자



담양 봉산면 축구협회 등 ‘사랑의 쌀’ 기탁 잇따라

담양군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담양군에 따르면 무등산생태오양병원(이사장 장호직)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 20kg 20포(100만원 상당)를 가사문화면에 기탁했다.

무등산생태오양병원은 2013년부터 매해 꾸준히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기 위해 지역 농가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서구 양동 통장단, 희망2020나눔 캠페인 성금 전달

광주 서구 양동 통장단(회장 채영숙)은 지난 22일 양동 주민센터에 희망 2020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 330여만원을 전달했다.

27일 서구에 따르면 양동 통장단은 관내 저소득층 돌봄 이웃을 위해 매년 겨울 직접 쌀 베풀고 나서 성금을 모금해왔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양동주민센터 변미자 동장은 “매년 겨울마다

소중한 성금을 모금해 주신 양동 통장단에게 감사하다”며 “이 성금을 관내 저소득층에게 지원함으로써 정과 사랑이 넘치는 양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동 통장단은 지역사회의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위기가구발굴단인 ‘양동지킴이단’을 구성해 ‘동절기,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돌봄 이웃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안부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환준기자



광주여대 초등특수교육과 신입생 예비대학 실시

광주여대(총장 이선재) 초등특수교육과는 최근 신입생 및 재학생 35명을 대상으로 전체 지도교수(박상희, 김일명, 김영미, 이재호, 임수진 교수)와 대학의 첫발걸음을 때는 실험 가득한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졸업생 고은지(15학번)씨의 재미있는 수화교실과 교재교구전시회에서 수상한 재학생들의 창의적인 작품설명이 이어졌다.

또 광주시가 자랑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해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의 특강과 관련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센터 내 카페에서 작년 광주시교육청 임용에 수석 합격한 김예슬(07학번)씨가 마련한 음식을 나눠먹으며 ‘특수교사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 및 다양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최권범기자

동신대, 캐나다·말레이시아서 어학연수·봉사활동

동신대학교(총장 최일) 재학생들이 겨울 방학 동안 해외에서 어학연수와 봉사활동을 벌이며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있다.

동신대 국제교육원은 재학생 10명을 선발, 지난 13일부터 오는 2월9일까지 ‘캐나다 해외어학연수’를 진행 중이다.

학생들은 4주 동안 주 5회, 매일 4시간씩 캐나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어학 교육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23일부터 이달 19일까지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 15명의 재학생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어학연수를 진행했다.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베트남 봉타우 지역에서 진행된 해외봉사에는 재학생 21명이 참여



했다.

오성록 국제교육원장은 “각종 해외 연수를 통해 학생들이 어학 능력은 물론 글로벌 인재로서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주)우리개발, 목포시에 사랑나눔 성금 1천만원 기부

(주)우리개발(회장 이정철)은 최근 저소득층 나눔 사업을 위한 성금 1천만원을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목포시에 지정 기탁했다.

기탁금은 목포시 관내 저소득층 고교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한 수학여행 경비 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을 통해 지원된다.

이정철 (주)우리개발 회장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고교 시절 추억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북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표창장 수여

광주 북부경찰서(서장 권영만)는 최근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광주농협 매곡지점을 찾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A 은행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A 은행원은 지난달 17일 고령의 노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고액 이체하려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돼 신속한 112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줬다.

농협 매곡지점장은 “은행원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기자

전남교육청 ‘정보공개 우수’ 장관 표창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사진)이 2019 정보공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표창은 577개 주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15곳이 받았으며,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전남도교육청이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처음 실시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도 주요 공공기관 중 상위 20%에 주어지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지하철과 공감의 정령’ 교육지표를 바탕으로 정보를 선제적·적극적으로 공개해왔다. 정보공개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정보공개 처리 역량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김평훈 행정국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교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윤민아 호남대 교수

‘유아교육 유공’ 부총리 표창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학과장 김민희) 윤민아 교수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윤 교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연구진으로 참여해 고시문의 내용을 교육 현장에서 수월하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설·집필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폭넓은 이해 및 연구 등 누리과정 후속사업의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자문단, 현장교사로 구성된 연구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의 참여형 연수를 통한 현장 이해를 고취하는 등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다.

/최권범기자



상무스타치과병원·G-플라텍 진료협약

상무스타치과병원(원장 김운규)은 최근 G-플라텍(대표이사 김선홍)과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G-플라텍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G-플라텍 명윤철 이사, 김영호 지원팀장, 상무스타치과병원 김재홍 대표협력이사

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G-플라텍 직원 및 하청업체 가족들이 상무스타치과병원을 방문 시 진료비 검검과 진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오송지기자

결혼

●국종현·신수영씨 장남 준호군, 김일수(전주과학교 교사)·윤인정씨 장녀 하은양=2월1일(토) 오후 3시 라마다 서울 신도림호텔 14층 하늘정원홀.

▲김천국(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장)·형귀례씨 장남 선진군, 선종수·조정희씨 장녀 승하양=2월2일(일) 낮 12시 광주 북구 문흥동 까사디루체웨딩홀 1층 루체홀.

▲이종두(전 영광기독신학병원)·김준복씨 아들 윤빈군, 박승훈(광주 알곡교회 담임목사)·이재선씨 딸 성실양=2월8일(토) 낮 12시 광주 상무지구 라복웨딩홀 3층 더하우스홀(당일 오전 10시30분 영광군 흥농을 진덕리 진정마을, 10시40분 흥농택시부 앞, 11시 영광읍 파머스마켓 앞 전세버스 출발), 피로연 2월5일(수) 오전 11시 영광읍 영빈웨딩홀.

등산

●담양농협(조합장 김병진) 여성산악회 제77차 산행 고흥 거금생태숲 일원=2월1일(토) 오전 8시30분 담양농협본점 출발, 문의 박민경 회장 010-4615-4897.

●광주호산회, 완도 상황봉=2월1일(토) 오전 6시30분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롯데백화점 광주점, 문화예술회관 후문 경유, 문의 010-4621-2166.